

노동감독관 증원과,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2.(수) 한국경제, 노동감독관·교원 대폭 증원 ... 국민 체감할 어떤 실익이 있나

○ 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한 일터 실현을 앞세워 노동감독관을 증원하고 있지만, 기대만큼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,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감독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음
 - '25~'26년까지 노동감독관 정원 2천명(노동기준분야 8백명, 산업안전분야 12백명)을 증원하였고, 감독 전담부서를 신설('25.12월, 노동기준분야 39개, 산업안전분야 40개) 하였음

[노동기준분야]

- 노동감독관 증원과 함께, 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
 - ① 체불신고 반복 사업장 대상 임금체불 전수조사 실시('25.12월~)
 - ② 가짜3.3, 포괄임금 오남용 등 새로운 위법·탈법에 대한 감독 강화
 - ③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 운영 상시화 및 언론보도 사업장 즉시 감독 착수

- 이에 따라, 올해 들어 임금체불액과 체불 노동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

* · 임금체불액('26.6월) : 9,248억원, 전년 동월(10,358억원) 대비 약 10.7% 감소
· 체불 노동자 수('26.6월) : 109,830명, 전년 동월(130,467명) 대비 약 15.8% 감소

[산업안전분야]

-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노동감독관 증원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지원이 중요한 상황임

- ① 감독대상 사업장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('25년 2.4만개소 → '26년 5만개소)
- ② 동일유형 반복재해 발생기업(183개소) 밀착관리 등 고강도 관리방안 추진
- ③ 여름철 폭염,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24시간 전담 관리체계 구축

- 금년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(전년대비 11.8% 감소)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, 사고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

* (산재 사고사망자수_상반기) '24년 296명 → '25년 287명 → '26년 253명

-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증원에 더해 노동감독관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의 교육 강화,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전문교육기관 설치('27년 개원) 등도 추진하고 있음

- '27년까지 감독대상 사업장을 OECD 평균 수준인 14만개소(全 사업장의 7%)까지 확대하고, 노동+산업안전 통합감독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,

- 기업의 법 위반 예방과 자율 개선을 적극 지도·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	신유진 (044-202-7971)
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오성곤 (044-202-8903)